

영아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 연구

이옥임¹⁾ 노희연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면행동지도, 이유식과 식생활지도, 배변훈련 및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 지도의 일상적 양육 시 부모가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생후 36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10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수면 지도 시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주로 영아들의 숙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2)이유 지도 시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숟가락의 식사도구를 사용해 보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3)식생활 지도 시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주로 바른 자세와 식사예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아의 식습관 발달 이해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4) 배변훈련 시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되도록 짧은 시간동안 실수 없이 영아 스스로 배변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배변훈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5)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 지도 시 부모들이 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소멸되거나 빨리 다른 건전한 행동으로 전이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 발달 이해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주제어: 영아, 부모 기대감, 일상적 양육, 양육 스트레스

1)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전임강사

2) 숭의여자대학 아동미술디자인전공 시간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를 출산하면서 부부는 자녀가 없는 부부 상태에서 부모기로의 ‘전환(transition)’의 시기를 맞이한다(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두 사람만의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관계로의 전환은 큰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부모는 부모자녀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며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이 된다(김유미, 2010; 민홍은, 2008; Cole, 2005). 그러나 자녀양육이 모든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들이 부모역할 수행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혜성, 2006; 민홍은, 2008; 박봉주, 2006; 이대균, 황주미, 2008; 임순화, 2009; Cowan, Cowan, Heming, & Miller, 1991).

특히 양육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아기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며(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휴식과 잠자기, 식사와 간식, 세면과 배변 등 기본생활을 위한 시간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아기 발달 특성상 일상적 양육의 시간에 주로 나타난다(이옥임, 이혜경, 박성희 2008; Crockenberg & Litman, 1990). 강희경(1998)은 이러한 일상적 양육에서 오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로 분류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인해 부모가 지각하는 일상적인 짜증, 신경질, 당황 같은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며, 아동의 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예언하는 주요 근원이 된다(김혜성, 2006; 신숙재, 1997).

그런데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양육행동을 조절하게 되는데, 부모의 기대가 적절하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과잉기대를 할 경우 아동은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박은희, 2003).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기 쉽다. 특히, 2세를 전후하여 시작되는 부모의 사회화 의도는 부적절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영아와 더 빈번하고 강도 높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이후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옥임, 2006, Erikson, 1963).

부모가 영아기 자녀에 대해 적절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에 대한 지식은 아동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아동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아동은 각 연령의 발달 시기마다 성취하여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으며, 영아는 제 발달 영역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즉, 영아는 영아기 동안 양육자와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세상을 느끼고 탐색하며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실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영아는 영아기 발달 특성상 이러한 발달과업을 일상적 양육의 시간을 통해 성취해나간다(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따라서 부모는 영아발달에 바탕을 둔 적절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 일상적 양육의 시간을 통해 활발히 영아기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과의 관련성(김혜성, 2006; 민홍은, 2008; 박봉주, 2006; 임순화, 2009; Cowan, Cowan, Heming, & Miller, 1991; Kalmuss, Davidson, & Cushman, 1992)에 초점을 두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 연구는 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발달기대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안기준, 2001; 이재구, 2000; 이희선, 1995). 영아기가 발달의 제 영역에서 결정적 시기이며(Albrecht & Miller, 2001), 영아기의 발달 특성상 영아기 발달과업이 주로 일상적 양육의 시간 동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면, 영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일상적 양육의 시간동안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아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면행동지도, 이유식과 식생활지도, 배변훈련 및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 지도의 일상적 양육 시 부모가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아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돕는 양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기대감 척도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수면 지도 시 영아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2. 영아의 이유(젖(병)떼기) 및 이유식 지도 시 영아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3. 영아의 식생활 지도 시 영아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4. 영아의 배변훈련 시 영아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5. 영아의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 1) 고집피우기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 2) 손가락 빨기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 3) 물기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 4) 밀거나 때리기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다(김유미, 2006; Cole, 2005). 실제로 이대균과 황주미는(2008) 첫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은 어머니 됨의 기쁨, 영아가 생리적인 욕구 충족을 잘 할 때의 기쁨, 영아의 발달 과정에서 변화됨의 기쁨, 다른 아이보다 앞서가는 기쁨, 육아관련 지식과 정보공유를 통한 문제 해결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이 모든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들이 부모역할 수행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혜성, 2006; 민홍은, 2008; 박봉주, 2006; 이대균, 황주미, 2008; 임순화, 2009; Cowan, Cowan, Heming, & Miller, 1991; Kalmuss, Davidson, & Cushman, 1992). 이에 대해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2005)은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다른 역할에 비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긴 세월이 필요하

다. 둘째, 어머니는 일차적인 양육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버지에게 비해 높고, 특히 취업모일 경우 이중역할로 인한 갈등이 훨씬 심하다. 셋째, 첫 자녀의 출산을 통해 가족관계는 지금까지의 이자체계에서 삼자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환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을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필요로 한다. 넷째, 오늘날 부모역할의 어려움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상의 양육의 어려움은 부모에게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자녀 양육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양육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아기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며, 영아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외, 2009).

가. 2세미만 자녀의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

영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따뜻하고, 민감하고, 일관될 때 영아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탐색하고 알아나가게 된다(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그러나 영아를 처음 돌보게 되는 초보 부모들은 영아의 욕구나 반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핵가족화와 가족기능에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초보 부모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적절한 양육방법을 주변에서 구할 수 없는 많은 초보 부모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김영주, 2001). 그러나 문제는 답을 주는 부모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할 뿐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여 잘못된 양육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모는 여전히 영아 양육에 대한 지식에 목마름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영아 양육에 자신감이 낮으며, 영아의 신호와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김희선, 심미경, 김태임 외, 2007).

구체적으로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것 떼기와 이유의 방법을 모를 때, 배변훈련을 시도할 때, 영아가 졸려서 칭얼댈 때, 영아의 울음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월령에 맞는 적절한 장난감 선택과 교육 시기의

결정할 때 등 적절한 양육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희연, 2008 ;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외, 2009; 이대균, 황주미, 2008).

나. 2세 자녀의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

자율성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2세 때에 영아는 어떤 영역이든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가 강하다(이옥임, 2006). 이와 함께 주 양육자가 마련해주는 심리적 안전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존심도 공존한다(Janet, Margaret, & Michael, 1995). 이러한 독립심과 의존심의 상반된 욕구 때문에 2세 영아의 행동은 사물에 대한 독립적 탐색, 내면화를 통한 권위에의 순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싫어, 안 해', '내가 할래!', '내꺼야' 등의 강한 자기주장과 고집스러움, 잦은 기분 변화와 변덕스러움, 격렬한 정서표현(temper tantrum)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Janet, Margaret, & Michael, 1995). 그래서 2세 영아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양육자에게 어려움과 도전감을 주는 문제행동으로 인식되며,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한다(윤주화, 1999).

그리고 영아기와 유아기의 전환기인 2~3세경부터 부모 및 양육자들은 영아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고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Erikson, 1963). 따라서 이 시기의 양육자들은 영아의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것과 같은 영아의 심리적 발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영역이든 출현하는 자율성을 강하게 시도하려는 영아와 사회화의 목적을 지닌 양육자 사이엔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 Erikson(1963)이 '의지의 싸움'이라고 부른 영아의 자율성과 사회 규제 사이의 불화는 도처에서 일어나며 이는 영아 발달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세 영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며(이재연, 김경희, 1989), 2세 영아는 미운 세 살, 끔직한 두 살(terrible twos), 발끈 화내는 두 살(tantrumming twos), 시끄러운 두 살(tumultuous twos), 독립 선언가(declarer of independence), 부정론자(negativist)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Albrecht & Miller, 2001).

구체적으로 2세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2세 영아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떼를 쓰며 우는 행동, 화가 날 때 발버둥치고 뒤로 뺨대며 넘어지는 행동, 동생이나 다른 아이를 밀거나 때리거나 무는 행동, 식사시간에 음식을 흘리는 행동, 장난감을 독점하려는 행동,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하는 행

동 등 주로 공격적 행동과 반항적 행동들이었다(윤주화, 1999; 이옥임, 2006).

2. 부모의 자녀 기대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일상적 양육의 시간동안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는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감에 기인하기 쉽다. 부모가 매일 부딪히는 일상생활에서 영아기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양육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정하게 되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기대가 적절하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의 행동특히 학업 성취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적절한 과잉기대를 할 경우 아동은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대 부모의 경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에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수준의 기대를 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인 기대라 할 수 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기대 수준이야말로 “아동에게 가장 긍정적인 환경이란 아동의 선호 또는 능력과 부모의 기대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은희, 2003).

그렇다면 영아의 수면지도, 식생활지도, 이유지도, 배변훈련,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 지도 상황별로 양육자의 적절한 기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수면지도시의 적절한 기대감이란 영아기의 수면에 대한 의미 이해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아기의 수면이란 우선 신체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은 곧 영아의 신체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더불어 영아기의 수면이란 휴식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영아들은 움직임이 많은데 대부분 이를 조절하기 보다는 지칠때까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까지 가기도 하는데 숙면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피로와 피로로 인한 짜증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Albrecht & Miller, 2001; Gestwicki, 1994; Miller, 2005)

식생활지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영아가 식사시간을 즐겁게 인식하고 식사할 장소와 식사할 타이밍 등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식사에절을 강조하여 영아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한다면 영아

는 식사시간을 즐겁게 인식하기 보다는 힘든 시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영아기에 있어서 식사예절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음식과 즐거운 식사분위기를 맞보며 좀 더 식사시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지성애 외, 1999; Miller, 2005)

이유식 지도에 있어서 양육자는 우선 영아가 다양한 맛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우유에서 고형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영아는 이후 자신의 입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되 되도록 천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지성애 외, 1999)

배변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의 준비도이다. 영아가 배변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신호, 즉 기저귀가 오랜시간 말라 있다거나, 배변하는 타이밍에 이와 관련된 신호를 보낸다거나, 옷을 벗고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등의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화장실과 변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단시간에 배변훈련을 종료하고 서둘러 화장실과 변기로 전이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적절한 기대가 될 것이다. 배변훈련에서의 적절한 기대감이란 배변훈련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와 관련된 신호를 영아 스스로 보내고 편안하게 변기와 화장실에 관심을 보이고 배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다(노희연, 2008).

부정적인 사회 정서적 행동 지도에 있어서 영아의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문제행동 쫓으므로 간주하고 이를 강제로 수정하려고 하면 영아와 양육자 모두 힘들 수 있다. 영아기에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영아들은 종종 이러한 표현을 다소 과장되거나 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양육자는 이를 인정하고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델링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Gestwicki, 1994).

이처럼 각 양육상황별로 양육자가 적절한 기대를 가질 때 양육자와 영아 모두 자연스럽게 발달의 과정을 거쳐 그야말로 파트너로서 함께 이 과정을 겪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 상황별 기대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생후 36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부모들의 연령과 주 양육자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연령과 주 양육자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6세-30세	2	1.9
	31세-35세	72	66.7
	36세-40세	32	29.6
	40세 이상	2	1.9
	계	108	100
주 양육자	어머니	89	82.4
	아버지	2	1.9
	보육교사	14	13.0
	기타	3	2.8
	계	108	100

연구 대상 부모들의 자녀특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자녀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의 성별	남	49	45.4
	여	59	54.6
	계	108	100
자녀 개월 수	24개월 이하	23	21.3
	25-30개월	41	38
	31-36개월	44	40.7
	계	108	100

2. 연구도구

부모들의 양육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자는 선행연구(윤주화, 1998; 지성애 외, 1999)를 토대로 양육의 내용을 수면 지도, 이유(젓(병)떼기) 및 이유식 지도, 식생활

지도, 배변훈련, 영아의 부적절한인 사회, 정서적 행동(떼쓰기와 고집 피우기, 손가락 빨기 행동, 무는 행동, 밀거나 때리는 행동)지도로 분류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여 연구 대상 부모들에게 배부하였다.

본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항 내용의 이해정도와 중복되는 내용, 질문지 작성 시간 등을 검토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보완된 질문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와 박사과정 이상의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안면타당도를 구하고,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에 관한 질문지’ 구성내용

구성	문항내용	문항
수면 지도 시 기대내용	수면지도 시 기대하는 행동	1
이유(젓(병)떼기) 지도 시 기대내용	이유(젓(병) 떼기) 지도 시 기대하는 행동 이유식 제공 형태	2
식생활 지도 시 기대내용	부적절한 식사행동 시 기대하는 행동	3
배변훈련 지도 시 기대내용	배변훈련 지도 시 기대하는 행동	4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 지도 시 기대내용	떼쓰기, 고집 피우기 행동 지도 시 기대하는 행동	5
	손가락 빨기 행동 지도 시 기대하는 행동	6
	물기 행동 지도 시 기대하는 행동	7
	밀거나 때리기 행동 지도 시 기대하는 행동	8
계(문항 수)		8

3. 연구절차

우선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2009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아양육 관련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영아의 양육 상황에 대한 질문지 내용을 추출해본 후 질문지를 구성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질문지 10부를 영아 부모들에게 배부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의 구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부모들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보고 질문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실제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의뢰하여 부모들의 질문지 응답 가능 여부를 알아본 후 가능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질문지를 총 180부 배부하고 회수하였는데, 그 중 응답이 미비하거나 설문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수면 지도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

‘자녀가 어떤 잠자리 습관을 갖기 원하는가’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수면지도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길 원한다	37	34.3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길 원한다	25	23.1
먹거나 빨지 않아도 잠이 들길 원한다	13	12.0
재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잠을 자길 원한다	16	14.8
바른 자세로 잠을 자길 원한다	5	4.6
부모와 독립하여 자길 원한다	9	8.3
밤에 오줌을 싸지 않기를 원한다	1	.9
무응답	2	1.9
계	108	100

수면지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내용을 보면 우선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길 원한다’(34.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길 바란다’(23.1%), ‘재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잠을 자길 원한다’(14.8%)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먹거나 빨지 않아도 잠이 들길 원한다’, ‘바른 자세로 잠을 자길 원한다’, ‘부모와 독립하여 자길 원한다’, ‘밤에 오줌을 싸지 않기를 원한다’ 등의 기대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보아 수면 지도 시 부모들의 기대내용은 주로 영아들의 숙면과 관련

된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아 숙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2. 이유(젓(병)떼기) 및 이유식 지도 시 영아 부모의 기대

‘자녀가 어떻게 이유식을 하길 원하는가’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이유(젓(병)떼기)에 대한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적절한 때에 이유를 하길 원한다	12	11.1
다양한 미각의 이유식을 경험하길 원한다	58	53.7
이유 후 특별한 이유식 없이도 성인식을 먹길 원한다	21	19.4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유식을 먹을 수 있길 원한다	13	12.0
잘 먹었으면 좋겠다	2	1.9
무응답	2	1.9
계	108	100

이유(젓(병)떼기)에 대한 부모의 기대내용을 보면 ‘다양한 미각의 이유식을 경험하길 원한다’(53.7%)가 가장 많았고, ‘이유 후 특별한 이유식 없이도 성인식을 먹길 원한다’(19.4%)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유식을 먹을 수 있길 원한다’(12.0%)는 내용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적절한 때에 이유를 하길 원한다’(11.1%), ‘잘 먹었으면 좋겠다’(1.9%)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들은 이유 시 영아가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성인과 같은 방법과 도구로 되도록 빨리 전이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영아기 이유지도에 있어서 중용한 점인 영아들의 다양한 맛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식생활 지도 시 영아 부모의 기대

‘자녀가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갖길 원하는가’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을 보면 <표 6>과 같다.

영아의 식생활에 관한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바르게 앉아먹는다’(41.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밥과 반찬을 같이 먹길 원한다’(15.7%), ‘밥을 다 먹고 일어나

길 원한다'(13.0%), 는 내용이 많았다. 이 외에도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6.5%) '밥과 국을 깨끗이 먹길 원한다 (예-밥알 긁어먹기, 국물 다 먹기)'(5.6%),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식사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길 원한다'(5.6%), '흘리지 않고 먹길 원한다'(3.7%),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길 원한다'(3.7%)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영아의 식생활 지도에 대한 영아 부모들의 기대는 주로 바른 자세와 식사 예절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들이 영아 기 식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인식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적합한 기술과 예절 습득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표 6> 식생활 지도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밥과 반찬을 같이 먹길 원한다	17	15.7
밥과 국을 깨끗이 먹길 원한다(예-밥알 긁어먹기, 국물 다 먹기)	6	5.6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7	6.5
바르게 앉아서 먹길 원한다	45	41.7
밥을 다 먹고 일어나길 원한다	14	13.0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먹길 원한다	2	1.9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의 식사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길 원한다	6	5.6
흘리지 않고 먹길 원한다	4	3.7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길 원한다	1	.9
오른손으로 먹길 원한다	1	.9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길 원한다	4	3.7
무응답	1	.9
계	108	100

4. 배변훈련 시 영아 부모의 기대

'자녀가 어떻게 배변훈련 하길 바라는가'에 대한 영아부모의 기대내용을 보면 <표 7>과 같다.

영아의 배변훈련에 관한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혼자 유아용 변기 혹은 화장실에 다녀오면 좋겠다'(28.7%)와 '혼자 유아용 변기 혹은 화장실에 다녀오면 좋겠다'(28.7%) 라는 내용이 대부분은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배변훈련에 성공하면 좋겠다'(27.8%), '배변훈련 동안이나 후에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20.4%)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되도록 짧은 시간

동안 영아 스스로 배변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변훈련에 대해 부모들은 특히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배변훈련 과정에서의 영아들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빨리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배변훈련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빠른 시기에 기저귀를 땀으면 좋겠다.	20	18.5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배변훈련에 성공하면 좋겠다.	30	27.8
배변훈련 동안이나 후에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2	20.4
혼자 유아용 변기 혹은 화장실에 다녀오면 좋겠다.	31	28.7
기타	5	4.6
계	108	100

5. 영아의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

가. 고집피우기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고집 피우는 상황에서 자녀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고집피우기 상황에서의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부모의 말에 순응하길 원한다	4	3.7
이유를 설명하면 부모의 말을 따라주길 원한다	48	44.4
이유 없이 떼를 쓰는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8	7.4
원하는 것을 똑똑하게 잘 표현하길 원한다	31	28.7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길 원한다	14	13.3
무응답	3	2.8
계	108	100

영아들의 고집피우기 상황에서 영아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우선 ‘이유를 설명하면 부모의 말을 따라주길 원한다’(44.4%)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것을 똑똑하게 잘

표현하길 원한다’(28.7%)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길 원한다’(13.3%), ‘이유 없이 떼를 쓰는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7.4%), ‘부모의 말에 순응하길 원한다’(3.7%)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아 부모들은 영아의 고집피우는 행동이 없어지고,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양육자들이 영아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을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는 점을 대표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다.

나. 손가락 빨기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

‘손가락 빨기 행동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에 대한 영아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손가락 빨기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0	15.7
빨리 손가락 빨기 행동이 소멸되길 원한다	9	8.3
손가락 빨기 행동이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바뀌길 원한다	31	28.7
거의 손가락을 빨지 않는다	48	44.4
계	108	100

손가락 빨기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을 보면 ‘거의 손가락을 빨지 않는다’(44.4%)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손가락 빨기 행동이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바뀌길 원한다’(28.7%),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지켜본다’(20%), ‘빨리 손가락 빨기 행동이 소멸되길 원한다’(8.3%) 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영아의 손가락 빨기 행동이 소멸되고 다른 건전한 행동으로 전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다. 물기 행동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

‘자녀의 무는 행동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에 관한 영아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물기 행동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2	20.4
빨리 무는 행동이 소멸되길 원한다	14	13.0
무는 행동이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바뀌길 원한다	29	26.9
간혹 일어나는 일이라 크게 생각안함	1	.9
거의 묻지 않는다	42	38.9
계	108	100

영아의 물기 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거의 묻지 않는다’(38.9%), ‘무는 행동이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바뀌길 원한다’(26.9%) 등이 대부분이었고, 이 외에도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지켜본다’(20.4%), ‘빨리 무는 행동이 소멸되길 원한다’(13.0%)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물기 행동 또한 사라지거나 또는 다른 건전한 행동으로 전이되었으면 하는 부모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 밀거나 때리기 행동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

‘밀거나 때리기 행동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밀고 때리는 행동에 대한 영아 부모의 기대내용

문항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9	8.3
빨리 밀고 때리는 행동이 소멸되길 원한다	63	58.3
밀고 때리는 행동이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바뀌길 원한다	28	25.9
간혹 일어나는 일이라 크게 생각안함	8	7.4
계	108	100

밀거나 때리는 행동에 대한 영아 부모들의 기대내용을 보면 ‘빨리 밀고 때리는 행동이 소멸되길 원한다’(58.3%)라는 의견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밀고 때리는 행동이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바뀌길 원한다’(25.9%)라는 내용도 많았으며, 이 외에도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8.3%), ‘간혹 일어나는 일이라 크게 생각안함’(7.4%)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밀고 때리는 행동 또

한 부모들에게 소멸되었으면 하는 행동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이나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V. 논의 및 제언

영아기의 발달 특성상 영아기 발달과업이 주로 일상적 양육의 시간 동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면, 영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일상적 양육의 시간동안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아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면행동지도, 이유식과 식생활 지도, 배변훈련 및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 지도의 일상적 양육 시 부모가 영아기 자녀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 지도 시 영아의 부모는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길 원한다’ 의숙면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기대하였다. 자는 동안 영아의 신체 발육의 대부분이 진행되고 휴식과 피로회복이 되므로 영아에게 있어 충분히 자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모들이 이러한 수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지도에 대한 적절한 기대감이란 영아기 수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아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면태도를 기대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연구(Albrecht & Miller, 2005; Gestwicki, 1994; Miller, 2005)에서 영아기의 수면이란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분한 휴식의 의미를 가지므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하는 것이 양육자의 주요 역할로 제시되고 있다. 부모는 수면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토대로 영아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루의 리듬을 조절하고, 온도, 습도, 밝기 등의 물리적 환경과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숙면을 취한 영아는 휴식과 안정을 가져서 에너지를 회복함으로써 다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 및 제 발달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이유(젓(병) 떼기) 및 이유식 지도 시 영아의 부모는 다양한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유기는 식사로 가기 위한 전환적 시기로 이제까지 젓(혹은 분유) 맛에 익숙해 있는 영아에게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숟가락 등의 식사도구를 소개하는 기간이다(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모들이 이러한 이유기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이유와 이유식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토대로 이유식 시간을 여유 있게 마련하고, 영아가 음식의 맛을 느끼고 음미하며, 부모와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감각적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아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바른 식생활습관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식생활 지도 시 영아의 부모는 주로 바른 자세로 식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에 절을 지키며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자조기술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모의 부적절한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 영아기는 아직 소근육 통제기술과 신체기관의 협응이 미숙하여 식사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식사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며, 영아에게 음식은 보고 만지고 먹고 냄새 맡으며 정보를 얻는 탐색과 학습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아기에 음식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여 흘리지 않고 깨끗이 먹거나, 한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식사에 절을 지키며 먹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아 입장에서 주어진 음식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두 먹는 것은 고통이다. 이에 반해 부모는 식사시간에도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고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의 목표를 가지고 영아를 지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아 식사지도는 하루 일과 중 부모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이옥임, 이해경, 박성희, 2008). 부모가 영아의 식사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대감, 즉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탐색하여 식사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더 영아의 입장에서 기대감(Gestwicki, 1994)을 가진다면 식사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영아와 이를 통제하려는 양육자 간에 갈등을 막을 수 있다. 부모는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술을 숙달시키려는 영아들의 노력을 수용해야 하며, 영아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부모자녀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힘겨루기를 피해야 한다.

넷째, 배변훈련 시 영아의 부모는 되도록 짧은 시간동안 실수 없이 영아 스스로 배변훈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변훈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모의 부적절한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 배변훈련은 단순히 신체의 특정 기관을 자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대뇌 및 신경계의 발달, 대·소근육의 발달, 언어 발달 등이 함께 준비되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다(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10). 그리고 배변훈련은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한 정들었던 기저귀와 분리되어 낯설고 불편한 화장실로 전이해야 하는 심리 정서적 과제를 이겨내야 하는 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노희연, 2008; Albrecht & Miller, 2001; Erikson, 1963). 따라서 배변

훈련은 신체적, 언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이 밑받침 될 수 있는 만 2~3세경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으며, 배변훈련동안 영아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있다. 배변훈련은 부모의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안내가 있는 과정으로 계획 되어야 하며, 부모는 영아에게 배변훈련의 주도권을 주고 영아와 어떠한 형태의 갈등상황도 피해야 한다. 일주일 혹은 몇 주 만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거나, 준비가 안 된 영아에게 배변 훈련을 강요하거나, 실수했다고 벌을 주게 되면 Erikson(1963)의 주장대로 자율성보다는 수치심, 의심의 발달로 향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배변훈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기대감, 즉 영아가 스스로 준비되어 배변훈련에 관한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자신의 방법과 타이밍에 맞추어 서서히 배변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Albrecht & Miller, 2005)을 가지고 배변훈련을 계획한다면 영아는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전이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조기술을 발달시키고 자율성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것이다.

다섯째, 고집피우기, 손가락 빨기, 물기, 밀거나 때리기 행동의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 지도 시 영아의 부모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이 최대한 빨리 소멸되거나 다른 건전한 행동으로 전이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고집을 피우는 행동에서는 부모가 이유를 설명하면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길 원한다는 응답과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길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걸음마기 영아의 강한 자기주장과 반항적인 행동적 특성을 사회화의 긍정적 신호로 보기보다는 곧 없어져야 할 문제행동으로 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윤주화, 1999; 이옥임, 2006; Crockenberg, & Litman, 1990). Albrecht와 Miller(2001)는 영아의 고집피우기, 손가락 빨기, 물기, 밀거나 때리기 등의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인간의 성장과정 중의 자연스런 한 부분이며 영아의 제 발달에서의 성숙과 발달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다른 건전한 행동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하였다. Erikson(1963) 또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영아기에 성인이 비권위적이고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영아와 상호작용한다면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영아의 고집피우기, 손가락 빨기, 물기, 밀거나 때리기 행동의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을 빨리 소멸되어야 하는 문제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인간발달의 자연스런 한 부분으로 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직간접적인 지원과 격려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으로 안내해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많은 부모들이 사회로부터 영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부모가 적절한 기대감을 갖고 영아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돕는 양육지원프로그램 개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의 식생활습관지도와 배변훈련 및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기대감 척도 개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 기대감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기대감 척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자녀화와 능력 있는 아동관이 팽배한 현대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영아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개념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부모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기대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영아들의 각 시기별 발달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양육행동과 양육기대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본 연구는 0-36개월 이라는 영아기를 다소 광범위하게 표집하여 양육기대감을 조사했으므로 개월 수마다 드러나는 구체적인 특징적인 양육기대감을 조사해 내는 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기를 좀 더 세분화 하여 구체적으로 양육상황과 그 기대감을 다룸으로써 영아기의 양육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비전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주(2001). PC통신에 나타난 어머니의 임신, 출산 및 영아 양육에 관한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1-14.
- 김유미(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투자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순, 심미경, 김태임 외(2007). 초산모의 영아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2), 119-127.
- 노희연(2008). 1세 영아의 분리과정과 양육자의 역할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홍은(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주(2006).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2003).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옥, 구수연, 이옥임(2010).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파주: 정민사.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기준(2001). 부모의 자녀교육 기대감의 시계열적 변화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 16(3), 297-325.
- 윤주화 (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동덕 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균, 황주미(2008).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의 어려움과 기쁨. *유아교육학논집*, 12(5), 103-132.
- 이옥임(2006). 2세 영아의 자율성형성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옥임, 이해경, 박성희(2008). 2세 영아의 자율성 시도와 어머니 조절전략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1), 133-153.
- 이재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1995).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아동학회지*, 16(1), 65-78.
- 임순화(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 어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복, 정순화, 홍계옥(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지성애, 김영주, 엄정례, 조경서(1999). 영아(0-36개월)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 Albrecht, K., & Miller, L. G. (2001). *Innovation: Infant & toddler development*. MD: Gryphon House, Inc.
- Cole, S. A.(2005). Foster caregiver motivation and infant attachment: how do reasons fostering affect relationship?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2(5/6), 441-457.
- Cowan, C. P., Cowan, C. A., Heming, G., & Miller, N. B.(1991). *Becoming a family*:

- Marriage,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P. A. Cowan & M. Hetherington(Eds.), *Child family transitions*, Hillsdale, NJ: Erlbaum.
- Crocke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61-97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e.* NY: Norton.
- Gestwicki, C. (1994).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New York: Delmar Publishers Inc.
- Janet, K. B., Margaret, B. P., & Michael. J. B. (1995). *The young child: Development from prebirth through age eight.*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Kalmuss, D., Davidson, A., & Cushman, L.(1992). Parenting expectations, experiences, and adjustment to parenthood: A test of the violated expectations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515-526.
- Miller, K. (2005). *Simple transitions for infants and toddlers.* MD: Gryphon House Inc.

- 논문접수 2010년 3월 12일 / 수정본 접수 5월 26일 / 게재 승인 6월 10일
- 교신저자: 이옥임, 송의여자대학 전임강사, okim72@sewc.ac.kr

Abstract

A study on the parents' expectation of infant & toddler in the routine care.

Lee Ok Im Noh Hee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ents' expectation of infant and toddler when they guide the behavior of sleeping, the eating habit, the weaning, the toilet learning and the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s for infants and toddl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180 copies were sent out to parents, 108 copies recollected that were answered questions given exactly. SPSSWIN program has been taken over for analysis of the data, the frequency was applied for interpre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Most of the of parents expect that 'the infants and toddlers have a good sleep' to guide for the sleeping habit. Second Most of the parents expect that 'the infants and toddlers taste a variety of weaning foods' to guide for weaning. Third, Most of the parents expect that 'the infants and toddlers eat sitting up straight' to guide for eating habits. Forth, Most of the parents expect that 'the infants and toddlers can have a bowel movement by themselves in a short space time' for toilet learning. Fifth, Most of the parents expect that the infants and toddlers 'take a parent's advice when they explain the reasons', 'don't suck their finger', 'don't bite' and 'don't push and beat' to guide the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s.

Key words: infant & toddler, patents' expectation, routine care, parenting stress